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4.): 미국

미국 농업·농촌·식품 동향

1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 강화¹⁾

-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위협받는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.
 - 팬데믹 기간 미국 내, 3,000만 명 정도의 성인과 1,200만 명 정도의 아동이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특히, 흑인과 라틴계 성인 중 식량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수는 백인 성인들에 비하여 약 2배로 나타나고 있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.
 - 바이든 정부에서 실시하는 바이든 부양책(American Rescue Plan)²⁾의 일부로 식량안보 정책들의 지원금액 증가, 정책 연장 등이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.
- **[SNAP 정책]**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(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, SNAP)은 식량안보를 위협받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심이 되는 정책임.
 - **(SNAP 수혜 금액 15% 증가)** 한 달에 가구원 1인당 제공받는 SNAP 금액이 28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7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
 - **(온라인 구매 활성화)**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자, 8개 주에서 시행하던 SNAP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 파일럿 정책을 46개 주까지 확대하여, 1,500만 명의 SNAP 수혜자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.
 - **(SNAP 지원금액 공정성 강화)** 코로나19 이후 SNAP 지원금액이 290억 달러 증가하였으나, 2,000만 명에 달하는 최빈층을 위한 지원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, 최빈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해야 함.

1) 미국 농무부의 "Biden-Harris Administration's Actions to Reduce Food Insecurity Amid the COVID-19 Crisis"(2021.3.3.)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(<https://www.usda.gov/>).

2) 바이든 부양책(American Rescue Plan)은 2021년 1월 20일에 발표된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으로 투자, 고용, 기후변화 대응, 교육, 백신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을 제시함.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4.): 미국

- **(SNAP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 관리)** 미국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알뜰식단 계획(Thrifty Food Plan)을 최근의 식품 가격과 기본 영양 섭취 기준을 반영하여, SNAP 지원금액을 조정하고자 함.

■ **[학교 폐쇄로 인한 문제점]** 학교 폐쇄로 인한 학생들의 굶주림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.

- 코로나19 이전에 약 2,200만 명의 학생들이 무상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학교 급식을 공급받았으나, 2020년 3월 이후 학교 폐쇄가 발생하여, 학생들의 식량안보 확보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함.

- **(P-EBT의 강화)** 학교 폐쇄로 인해 급식을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펜데믹 전자현금카드(Pandemic-EBT)³⁾를 16% 증액시켜, 3자녀 가정에는 한 달에 50달러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해줌.

■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과 신생아 및 아동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- 여성, 유아 및 아동 대상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(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, Infants and Children, WIC)은 모유수유를 하는 것 출산한 여성과 신생아,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영양보충 프로그램으로 바이든 부양책에 따라, WIC 홍보, 프로그램 혁신, 지원금액 증가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.

- **(채소 및 과일 접근성 강화)** WIC 현금 바우처는 WIC 수혜자들이 식료품점과 직거래 장터에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,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기존 한 달에 20달러 (아동: 9달러, 여성: 11달러)를 제공하였으나, 35달러로 증액하였음.

■ 이외에도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 강화, 대학생들을 위한 식품 지원 등 SNAP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들의 식량안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함.

- **(푸드뱅크 지원)** 의회에서 제공해주는 펀드를 통하여 푸드뱅크에 12.5억 달러의 지원금을 주고 이를 이용하여, 미 농무부의 농업 마케팅 서비스(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, AMS)를 통하여 푸드뱅크가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.

- **(SNAP 지원 연장 및 긴급지원 제공)** 18세가 넘어 SNAP의 아동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청년들에게 SNAP 지원을 연장하고, 25세 미만의 젊은 노숙자들에게 긴급보호소를 통하여 식량을 제공하고 있음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1.03.15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3) P-EB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간 농업·농촌·식품 동향(2020.2.15.)의 미국 농업·농촌·식품 동향 '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식품 지원 연장'을 참조바람.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4.): 미국

2 부재지주의 경제적 영향⁴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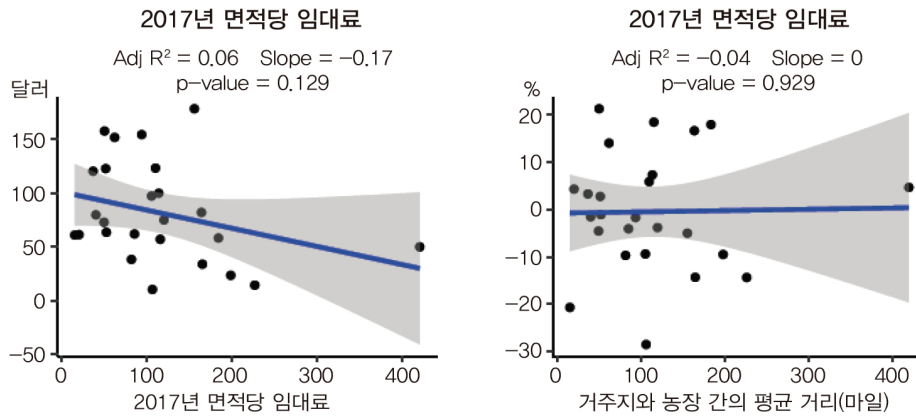
- 미국 농무부에서는 부재지주(Absent landlords)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보고서를 발표함.
 - 2014년 기준으로 39%의 농지가 임대되었고, 임대된 농지의 80%를 농장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음.
 - 농무부에서는 2014년 농지 보유, 소유 및 이전(Tenure, Ownership, and Transition of Agriculture Land, TOTAL) 조사를 통하여 48개 주의 토지 임대 현황과 소유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.
 - 비운영 농장 소유주(Non-operating landlords)는 자신의 농장을 임대해주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며, 부재지주는 농장과 100마일 혹은 2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비운영 농장 소유주를 의미함.
- 50마일 이하의 거리에서 거주하는 비운영 농장 소유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.
 - 농장의 위치와 농장 소유주의 주소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비운영 농장 소유주들이 자신의 농지 (혹은 소작농)에서 얼마나 떨어져 거주하는지 거리를 측정하였음.
 - 50마일 이하의 거리에서 거주하는 지주들은 1억 8,500만 에이커를 임대하고 있었으며, 50~100마일 사이에 거주하는 지주들은 2,400만 에이커를 임대함.
 - 1,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지주들은 1,100만 에이커를 임대함.
 - 지역별로 보았을 때, 25개 주요 농업 주 중, 노스다코타, 오클라호마, 캔자스의 지주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며, 미시간, 플로리다, 펜실베이니아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비운영 농장 소유주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부재지주의 거주지가 농장과 멀수록 면적당 임대료를 낮게 책정했으며, 농장의 총 가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.
 - 2017년 기준, 부재지주가 더 멀리 살수록 임대료가 낮게 나타났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임대료 상승에 부재지주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.
 - 마찬가지로, 2017년의 농장 가치는 거주 거리가 멀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가치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4) 미국 농무부의 "Absent Landlords in Agriculture - A Statistical Analysis"(2021.3.10.)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(<https://www.ers.usda.gov/>).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4.): 미국

그림 1. 거주지와 농장 간의 거리와 임대료 및 임대료 변화율 간의 상관관계 |



■ 부재지주 현상은 토양 보존을 위한 경운 기술 도입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, 피복식물(cover crop)의 재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.

-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63%에서 무경운 혹은 최소경운 기술이 도입됨.

- 피복식물의 재배는 농민이 토양 건강을 유지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대리변수(proxy variable)의 역할을 하는데, 부재지주의 농지에서는 피복식물의 재배가 다른 농지들에 비하여 적게 이루어지고 있어, 부재지주가 토양의 건강에 덜 신경 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.

■ 지역의 1인당 소득 증가율과 부재지주의 평균 거주 거리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주별 혹은 카운티별로 1인당 소득에 부재지주의 거주 거리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1인당 소득 증가율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음.

- 또한, 인구 증가율, 고용률과 부재지주의 거주 거리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1.03.22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3 미국 내 식료품 물가상승 현황⁵⁾

■ 미국 농무부에서는 2020년 식료품 물가상승률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.

-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에는 가정 내 소비 식료품(food-at-home)의 물가가 크게 상승했으나, 2021년에는 평균적인 물가상승률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함.

5) 미국 농무부의 "Retail Food Price Inflation in 2020 Outpaced Historical Average by 75 Percent"(2021.3.1.) 내용을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(<https://www.ers.usda.gov/>).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4.): 미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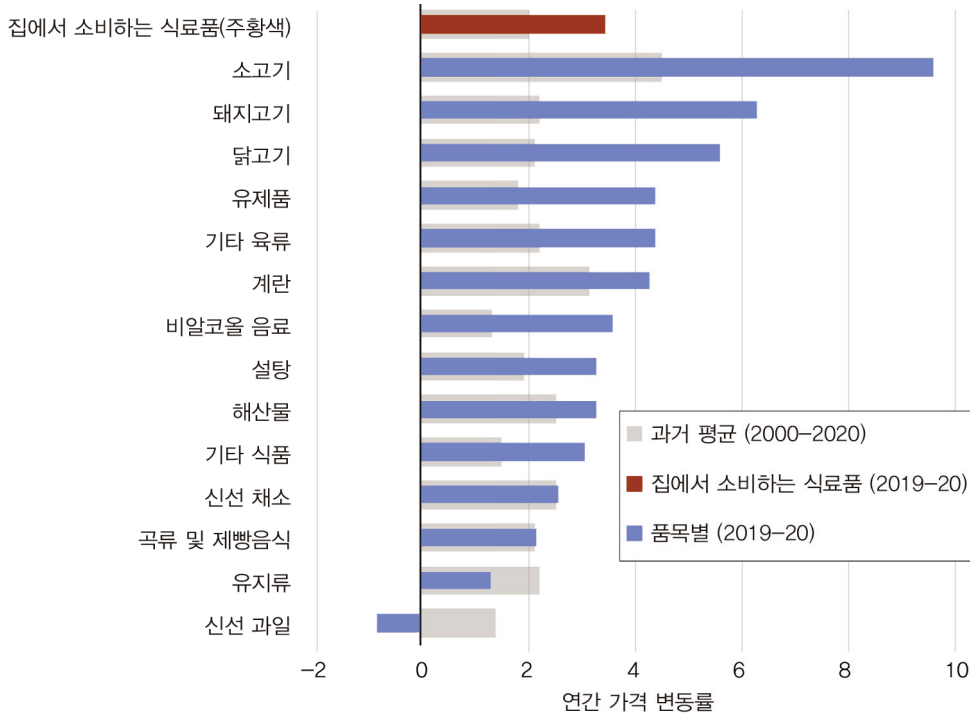
- 2019~'20년의 식료품 물가상승은 약 3.5%로 이는 평균 물가상승률에 비해 75% 높아진 수치임.
 - 미국 내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은 20년간 매년 2%씩 증가해 왔지만, 2019년 대비 2020년의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3.5% 수준으로 나타남.
 - 이러한 수치는 악천후와 작황 부진이 발생과, 높은 연료 가격과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발생한 2011년의 식료품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임.
- 집에서 소비하는 식료품 대부분은 2020년에 가격 상승이 발생하였음.
 - 신선 과일만이 주요 식품군 중 유일하게 가격 하락(-0.8%)이 발생함. 이는 국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, 코로나19로 인하여, 중국, 인도, 대만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발생하였고, 이로 인해 미국에서의 과일 수입이 감소하였으며, 특히, 미국산 사과, 포도, 체리의 수요가 감소함.
 - 자가격리 조치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상할 수 있는 신선식품의 소비를 줄였음.
 - 유지류는 다른 식품군에 비해 낮은 물가상승률(+0.8%)을 기록했으며, 이는 대두 생산은 증가하였으나, 코로나19로 인하여 튀김용 기름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.
- 육류는 전체 식품군 중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임.
 - 소고기는 9.6%, 돼지고기는 6.3%, 닭고기는 5.6%, 기타 육류는 4.4%의 물가가 상승하였음.
 - 20년간 평균적으로 소고기 4.4%, 돼지고기 2.2%, 닭고기 2.1%, 기타 육류 2.2%의 물가상승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며, 2014년에 가뭄과 높은 사료 가격으로 인하여 육류의 소매 가격이 증가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임.
 -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육가공 공장들이 조업을 중지해 육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임.
- 봉쇄조치로 인한 식당, 학교 등의 영업 정지가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침.
 - 육류뿐 아니라, 유제품, 계란, 비알코올 음료 등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4%씩 증가함.
- 기간별로 살펴보면, 2020년 4월에서 5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상품도 있으나,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품도 있었음.
 - 소고기 가격의 경우에는 4~5월까지 10.9% 정도 상승하였지만, 7월 이후로는 조금씩 하락하였음. 하지만 상승 속도보다 하락 속도가 느리게 나타남.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4.): 미국

- 돼지고기 가격은 8~9월에는 1.4% 감소하였으나, 이후에는 다시 0.9% 증가하여,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됨.

그림 2. 식품군별 물가상승률



자료: USDA ERS(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), 미국 노동통계국(BLS) 소비자물가지수(CPI)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1.03.29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4 2021년 농가 직불금 변화 예측⁶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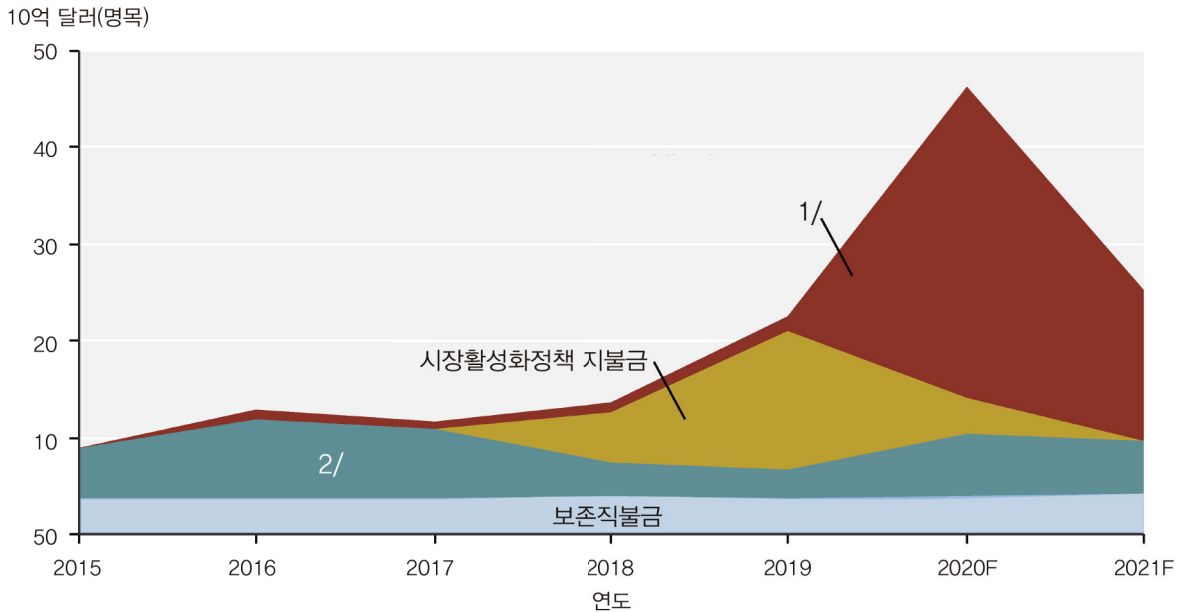
- 미국 농무부에서는 2021년의 농가 대상 직접지불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음.
 -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은 연방작물보험과 농무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포함하지 않음.
 -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2020년에 가장 많았으며, 2021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.
 - 이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직접지불금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됨.

6) 미국 농무부의 “2021 Farm Sector Income Forecast”(2021.2.5.)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(<https://www.ers.usda.gov/>).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4.): 미국

| 그림 3. 농가 직접지불금의 변화 |



주 1) F는 예상치를 의미함
 2) 1/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식품 지원 프로그램과 임금보존프로그램의 지불금을 포함하며, 2021년에는 통합세출법에 따른 지급도 포함함.
 3) 2/는 가격손실보상, 농업위험보상, 응자부족불제도, 유통용자차익, 낙농지불금 등을 포함함.
 자료: USDA ERS(미국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)

- 재난 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직접지불금은 2021년에 156억 달러로 예상됨.
- 2020년에는 165억 달러가 지원되었으나,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식품 지원 프로그램과 임금보존프로그램(Paycheck Protection Program)의 예산 감소로 직접지불금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.
- 코로나19 대응 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0년 237억 달러의 예산에 비해 2021년에는 25억 달러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.
- 임금보존프로그램(Paycheck Protection Program, PPP)은 2021년에 28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 되었으며, 2020년 59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, 중소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만,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시에는 일정량의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, 직접지불금의 형태로 볼 수 있음.
- 2021년 코로나19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2020년 12월에 발표된 통합세출법(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, 2021)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, 이 법안에 따라 농가 및 목장주들에게 8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음.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4.): 미국

-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외에도 작물, 보존(conservation), 낙농 등에 대한 직불금 또한 변화가 발생하였음.
 - 농업위험보상(Agriculture Risk Coverage, ARC) 프로그램은 2020년에 비하여 1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, 가격손실보상(Price Loss Coverage, PLC) 프로그램은 2020년 대비 4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- 이는 2020년의 옥수수과 대두의 작황이 좋고 가격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, 목화, 쌀, 보리의 가격은 2019년에 비하여 낮았기 때문에, ARC의 예산이 감소하고 PLC의 예산이 증가한 것임.
 - 보존직불금은 2021년에 3억 달러 증가하여, 42억 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.
 - 2018년 Farm Bill에서는 낙농마진보상프로그램(Dairy Margin Coverage Program)이 낙농마진보호 프로그램(Dairy Margin Protection Program)으로 전환되었고, 이로 인해, 2021년에 낙농업자들에게 총 1억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
 - 이 외에도 시장활성화정책(Market Facilitation Program, MFP)에 포함되어 있던 Minimal Residual Payments는 2018년~2020년까지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, 이는 미국 농무부가 추가적인 재정투입 계획이 없기 때문임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1.04.05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